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centered on the page. It features a stylized 'J' shape composed of blue, green, and grey waves. Inside the 'J' is a book icon and the text 'JEJU 1952'. The words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re written in a circular path around the logo, and '제주대학교' is written below it.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장 정 임

2009년 8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허철수

장정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장정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009년 8월

<국문초록>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장 정 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¹⁾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 1 :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문제 2 :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자료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보호관찰소와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학교밖 청소년 가운데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16세~21세 이내의 학교밖 청소년 14명을 선정하여 상담집단 7명, 비교집단 7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와 박명심과 김성희(2006)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의 하위요인은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자기효능감 검사의 하위요인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수행자기효능감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위기청

1) 본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중 1단계 교육프로그램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는 본 연구자가 매주 2회, 90분씩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방법으로 SPSS WIN 10.0을 활용하여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집단에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t-검증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진로성숙도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진로성숙도 각 하위 영역 가운데 결정성과 확신성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나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넷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진로자기효능감 각 하위 영역 즉, 진로 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수행효능감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 직업정보, 직업 선택 경험, 구체적인 구직 기술 등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세워 봄으로서 정규교육 과정 밖에서도 적절하게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도록 하는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5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과 발생원인	5
2. 진로성숙도의 개념과 수준	10
3. 진로자기효능감의 개념과 행동특징	13
4. 진로상담 프로그램	16
5.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진로성숙도,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19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3
1. 연구대상	23
2. 연구설계	23
3. 연구도구	24
4. 연구절차	28
5. 자료처리	28
IV. 연구결과 및 해석	29
1. 집단간 동질성 검증	29
2. 진로성숙도	31
3. 진로자기효능감	40
V. 요약, 결론 및 제언	47
1. 요약	47
2. 결론	48
3. 제언	50
참고문헌	51
Abstract	57
부 록	60

표 목 차

<표Ⅱ-1> 중퇴 청소년의 유형별 특징	9
<표Ⅲ-1> 진로상담 프로그램 구성 내용	24
<표Ⅲ-2> 진로태도성숙도 척도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26
<표Ⅲ-3>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27
<표Ⅲ-4> 연구의 진행절차	28
<표Ⅳ-1> 집단별 진로성숙도의 사전검사 차이 검정	29
<표Ⅳ-2> 집단별 진로자기효능감 사전검사 차이 검정	30
<표Ⅳ-3> 집단별 진로성숙도 사후검사 비교	31
<표Ⅳ-4> 집단별 결정성 사후검사 비교	33
<표Ⅳ-5> 집단별 목적성 사후검사 비교	35
<표Ⅳ-6> 집단별 확산성 사후검사 비교	36
<표Ⅳ-7> 집단별 준비성 사후검사 비교	38
<표Ⅳ-8> 집단별 독립성 사후검사 비교	39
<표Ⅳ-9> 집단별 진로자기효능감 사후검사 비교	40
<표Ⅳ-10> 집단별 진로탐색효능감 사후검사 비교	42
<표Ⅳ-11> 집단별 진로결정효능감 사후검사 비교	43
<표Ⅳ-12> 집단별 진로수행효능감 사후검사 비교	45

그림 목 차

[그림Ⅲ-1] 연구 설계	23
[그림Ⅳ-1] 사전·사후 진로성숙도 변화	32
[그림Ⅳ-2] 사전·사후 결정성 변화	34
[그림Ⅳ-3] 사전·사후 확신성 변화	37
[그림Ⅳ-4] 사전·사후 진로자기효능감 변화	41
[그림Ⅳ-5] 사전·사후 진로탐색효능감 변화	43
[그림Ⅳ-6] 사전·사후 진로결정효능감 변화	44
[그림Ⅳ-7] 사전·사후 진로수행효능감 변화	4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이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진로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거쳐 가는 과정이 아니라 평생동안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모든 체험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발달단계상으로는 자아정체감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시기이다. 김봉환 등(2000)은 이 시기에 진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로발달을 자극하고 촉진할 수 있는 진로계획, 의사결정, 적응문제 등의 진로지도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성을 습득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확립하며 사회적인 기능과 법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알며, 진로계획 수립 및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정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교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환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학교가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매년 약 6-7만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학교밖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 학업 중단은 개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과 노동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실업, 빈곤, 교정

등에 대한 더 많은 사회 복지 비용의 지출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의 증가, 청소년 유해환경 확대, 학교부적응 학생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더 이상 개인 혹은 가정,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문제 청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이라는 획일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으로 사회적 관심이나 배려없이 다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운영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잠재적 중도탈락자를 위한 상담개입연구만이 활성화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의 연구자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적 해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사회적 가치와 문화에 근거해야 하며 이들을 보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안현의, 2002) 있다.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기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아정체감과 자아상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진로행동 또는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병수 외, 2004).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살피기 이전에 이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 기강과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비행으로 이어져 사회적 위험요소가 될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로인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학교를 떠나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도움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안교육에 대한 안내”가 25.9%, “진로상담”이 20.5%로 나타났고, 학업중단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질문에는 “뚜렷이 할 일이 없음”이 21.3%, “미래의 불확실성”이 18.9%, “계획대로 안됨”이 11.8%로 나타나 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학

업중단 이후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학업”이 54.1%, “취업”이 48.6%로 나타났지만 막상 학업중단 이후에 한 일에 대한 질문에는 “임시 일용직 취업”이 42.4%, “무직”이 22.0%로 나타나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진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학업 중단 이후 이러한 욕구가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밖 청소년에게 자기 탐색과 이해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정립하고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은 대부분 정규교육과정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적용은 미비하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에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며,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그에 따른 진로 탐색 및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기학·이학주(2000)와 이은경(2000)은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밖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목적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확신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4.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5.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독립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탐색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수행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과 발생원인, 진로성숙도의 개념과 수준, 진로자기효능감의 개념과 행동특징,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진로성숙도,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과 발생원인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밖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중도탈락자(중도탈락청소년), 자퇴생, 탈학교 청소년,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비(非)학생 청소년, 중퇴 청소년, 부등교 청소년, 학업중퇴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이 있다(조용태·배영태, 2003).

‘중도탈락자’라는 말은 가장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 뜻을 풀어보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고 낙오 내지 ‘탈선’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김찬호, 2005). 이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부분 ‘학교부적응’의 관점에서 이해한 1980년대 후반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숙영 등(1997)은 중도탈락을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업을 포기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부(1997)는 학교중도탈락을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일탈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아정체감 및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념

방안이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김민정·김혜영, 2001).

1990년대 말부터는 이들에 대해 좀 더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중도탈락 청소년의 사회적응정책 개발이나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개입전략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김민정·김혜영, 2001). 김찬호(2005)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퇴학을 당한 청소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여전히 이 시기의 연구들은 중도탈락이라는 용어와 함께 부적응적인 관점들이 공존해 왔다.

이후 최근에 와서 이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학교밖’청소년(한국청소년상담원, 2004a)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청소년-근로 청소년, 무직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등-을 포괄하는 개념(한국청소년상담원, 2004b)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적인 요인들로 인해 자의·타의적으로 정규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고자 한다.

2) 학교밖 청소년의 발생 원인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학업을 중단하여 개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에 대한 Levine(1984)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중단이란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그리고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다변인적 현상이다.

장석민(1988)은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171명, 각종 학교와 직업학교 재학생 75명, 그리고 보호시설 청소년 72명 등 모두 318명을 대상으로 학교중퇴 및 상급학교 비진학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그 원인을 가정문제, 학교문제, 친구유희, 건강, 검정고시, 기타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개인적 원인,

가정적 원인, 학교 원인으로 구분하였는데(복수선택 합계 206%), 개인적인 원인은 29.7%(친구 피임22.4%, 이성문제 7.3%), 가정적인 문제 53%(가난 24.9%, 가정불화 12.0%, 취직문제 10.1%, 건강문제 3.2%, 가업문제 2.8%), 그리고 학교 원인 122.9%(공부에 대한 싫증 37.5%, 성적불량 35.6%, 교칙위반 26.5%, 교사에 대한 불만 13.2%, 검정고시 준비 5.7%, 학교 부적응 4.4%)로 나타나 중도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현진(1997)은 학업중단 청소년 74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공부가 싫음이 59.5%, 교칙위반이 18.9%, 사회진출을 위해서가 6.8%, 가정형편은 4.1%, 질병이 1.4%등으로 나타나 학업중단의 이유 중에 학교요인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구자경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퇴하고 싶은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학교교칙을 지키기 싫어서,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내신 성적이 나빠 검정고시를 쳐서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부모님과 갈등, 일하는 것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재미있어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등을 들고 있다.

이경림(2000)의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퇴당시 중퇴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지지 체계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86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 학교공부가 싫어서 44.2%, 집을 떠나고 싶어서(부모와의 갈등) 18.6%, 기타 16.3%, 사회진출을 위해서 7.0%, 가정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5.8%로 나타나 학교공부에 대한 싫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창남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중도탈락의 실행가능 원인은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능력과 적성 무시,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학교 규칙이 엄해서, 시험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성적에 따른 차별, 문제아로 찍혀서, 진로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불안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따돌림을 당해서 등이다.

학업중단 문제는 여러 요인이 서로 얽혀 있으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업중단

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나아가 중학생 조기 유학 등이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도도 중요한 문제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지금까지 학업중단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던 시각을 바꿔 학교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절한 개입과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 및 특징

학교밖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밖 청소년 집단 내의 여러 가지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시형 등(2002)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과정을 통해서 자기탐구형, 혼란형, 탈출형, 자포자기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자기탐구형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학교를 떠나고자 결심을 하고, 주로 대안학교 등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구하거나 검정고시 합격을 통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다. 혼란형은 학업중단에 대해 확고한 자신의 의지가 없고, 무의미하게 소일하거나 특정한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는 유형이다. 탈출형은 학업중단 자체를 현실 회피적인 동기로 하기 때문에 전혀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무작정 학교를 나오고 싶어서 나온 청소년들이다. 자포자기형은 대부분 학교로부터 퇴학을 통보받은 청소년들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부적응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이다. 이들은 시행착오 경험으로 인해 후회하고, 불안해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유형이다.

이숙영 외(1997)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 또는 정착 여부에 따라 크게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적응형에는 다시 진학형, 직장취업형, 취업준비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부적응형에는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소년원 수용 청소년, 보호관찰중 청소년, 요양중인 청소년)과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청소년

년, 방치된 정신질환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을 장석민(2002)이 <표Ⅱ-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Ⅱ-1> 중퇴 청소년의 유형별 특징

유형		특징
정착형	진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에서 수학 ● 학습의욕 상실 및 기술의 부족으로 부적응하기도함 ● 대인관계문제, 생활적응상의 어려움
	취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생활 정착 ● 진학준비를 병행하기도 함 ● 대인관계, 생활적응상의 문제
	직업훈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 ● 일부는 적응상의 어려움
비정착형	시설수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연루 후 소년원 수용 ● 반사회적 성격 ● 부기능적 가족 출신 ● 정신질환, 신체질환으로 병원 및 요양기관에 수용 ● 진학, 진로지도가 부재함
	방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비행행동, 폭력 ● 단란주점, 술집 등에 취업 중 ● 가출하여 소재가 불분명함 ● 무기력증, 의욕상실로 무위도식함

이와 같이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고 있으며, 도중에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유형 모두 적절한 지원개입이 필요하다.

2. 진로성숙도의 개념과 수준

진로성숙이란 진로인식에 대한 성숙수준으로 모든 연령층의 발달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발달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Carter(1940)와 Strong(1943)의 청소년과 성인의 진로성숙수준과 흥미유형의 관계 연구에서 시작되었다(이희영, 2003, 재인용).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다. 진로성숙을 개념화한 대표적 학자는 Super(1955)이다. 그는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성숙이란 탐색기부터 쇠퇴기까지의 발달 단계 중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를 의미하며, 진로성숙의 구성요인을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관성,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수집 및 계획성, 자기 특성의 구체적 이해,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지혜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 하였다.

Crites(1978)는 Vernon의 지능 위계구조 모델에 따라서 진로발달의 위계적 요소들을 제시하였으며 진로성숙이란 진로선택의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최인창, 2006, 재인용).

그 밖에 Gribbons와 Lohnes(1966)는 진로성숙도를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 진로성숙이란 개인이 습득한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성숙에 부합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직업적 성숙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Hoyt(1977)는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 양자를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로 보고 있다. 또한 김충기(1986)는 개인이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 보고 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이라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진로성숙이란 주어진 발달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라는 관점과 발달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고 특정 개인이 발달선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관점을 종합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진로성숙수준은 그 개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층에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곽영주, 2004).

진로성숙 또는 진로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검사도구로는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등을 뽑을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제작한 「진로성숙도검사」와 Crites(1973)가 제작한 것을 김원중(1984)이 번역한 진로성숙도검사(CMI: career maturity inventory), 김인수와 김명준(1996)이 제작한 진로성숙도검사(CMS: career maturity scale), 또한 이기학(1997)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정에서의 태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검사, 송인섭(2000)이 제작한 검사 등이 있다.

진로발달검사(CDI)는 진로발달의 주요 측면을 추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총 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발달에 대한 특수 영역을 측정하는 진로계획(20문항), 진로탐색(20문항), 의사결정(20문항),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20문항),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20문항) 등의 5가지 영역과 5개의 하위 척도 가운데 같은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조합하여 만든 진로발달-태도(진로계획과 진로탐색의 합), 진로발달-지식과 기술(의사결정과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의 합), 총체적인 진로성향(진로계획, 진로탐색, 의사결정,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의 합)의 3가지 영역 등 총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용과 대학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Crites(1973)의 진로성숙도검사(CMI)는 객관적으로 점수화되고 표준화된 진로발달 측정도구로서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선발용 척도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의 총점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일에 대한 태도의 관점에서 교육 및 상담의 효과를 분석하는 유용한 척도이다. 한편 상담용 척도는 5개의 하위 영역의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0문항은 선발용 척도와 동일한 것이다. 상담용 척도의 5개 하위영역으로는 결정성, 개입성, 독립성, 지향성, 그리고 타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력척도는 개인이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로 하는 지식 영역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 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ites(1973)의 진로성숙도검사

는 김원중(1984)이 번역하여 사용되어졌다.

Crites(1973)의 진로성숙도검사는 제작 연도가 너무 오래되었고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이므로 진로성숙도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보고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CMI)는 태도 영역과 능력 영역으로 구성된다. 진로성숙도에서 태도검사의 하위영역은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등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고, 능력검사는 직업세계의 이해 능력, 직업 선택 능력,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으로 구분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는 .65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로성숙도검사는 고등학생용으로 제작되어 진로발달단계 측면에서 학교밖 청소년에게 적합하나, 신뢰도가 비교적 낮고, 제작 시기가 비교적 오래되어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인수와 김명준(1996)의 진로성숙도검사는 중·고등학생용으로 제작되었는데, 태도 영역은 직업관, 독립성, 계획성, 사회적 협조성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이 검사 도구는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진로발달단계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송인섭(2000)의 진로성숙도검사는 중·고등학생용으로 분리되어 있다. 고등학생용은 태도검사가 적극성, 독립성, 결정성, 능력검사가 직업세계 정보 능력, 직업선택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의 여섯 가지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1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비교적 최근에 제작되었고, 고등학생용이어서 실험 대상에게 적합하지만, 문항수가 너무 많아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이기학(1997)의 진로태도성숙도 검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결정성(10문항), 목적성(8문항), 확신성(10문항), 독립성(9문항)의 5개 하위요인의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5개 하위영역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75~.88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검사도구 중에 신뢰도가 높고 비교적 최근에 제작 되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고 국내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기학(1997)의 진로태도성숙도 검사는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란 이기학(1997)의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결과로 나타난 점수의 수준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 진로자기효능감의 개념과 행동특징

진로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Bandura(1989)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통해 인간의 행동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스스로 그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영역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그러한 행동을 회피하게 하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그러한 행동에 보다 자주 접근하게 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효능감을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자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Betz와 Hackett(1981)이 여성의 진로발달을 연구하는데 도입하면서 진로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다.

이들은 여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도입하였다(Betz & Hackett, 2006). 이들은 남성 중심의 직업에서는 남학생들이 높은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고, 여성 중심의 직업에서는 여학생들이 높은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스스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여성들은 스스로 진로 유동성과 진로 대안들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진로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행동 예언력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와 관련된 수행들, 진로탐색, 학문의 지속성, 전공선택, 그리고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예언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김남순, 배종훈, 1998).

Betz와 Taylor(1983)는 자기효능감을 진로의사결정 모델에 적용시켰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과업과 행동에 자기효능감을 적용하여 진로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Mahalik & Sullivan, 2000). 이후의 여러 연구자들(이기학, 이학주, 2000; 이은진, 2001; Betz & Hackett, 1987; Good, Nord, & Solberg, 1994)도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탐색활동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에 따른 실제적인 준비행동을 할 때 자기효능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최근 진로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인지나 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김봉환, 1997). 예컨대, 직업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개인의 가치탐색, 능력이나 선택에 대한 평가, 관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 진로탐색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성공경험, 대리, 설득과 생리적 피드백의 4가지 경험들이 강조된 활동적인 처치 프로그램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탐색활동과 주변 네트워크 활용과 같은 개인적인 진로 관련 활동을 통해 성공 경험을 하고 타인을 관찰하거나 면접하는 대리 경험을 통해 더 세밀하게 언어적, 비언어적이고 상황적인 암시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장려를 통한 언어적 설득은 주어진 진로 추구활동을 하기 위한 개인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며, 혈압이나 불안수준과 같은 자신의 생리적인 감각을 모니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 상담에서는 언어적 설득이나 생리적 피드백 정도만 활용되어지지만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4가지 자기효능감 정보를 주는 경험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진로발달 과정에 있어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

수립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진로자기 효능감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 구조화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진로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로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진로자기효능감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Betz와 Hackett(1981)의 직업적 진로자기효능감 척도(occupational career self-efficacy scale)가 있다. 이 척도는 ‘교육요구’, ‘직업요구’ 등 직업적 진로와 관련된 요구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Taylor와 Betz(1983)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와 Betz 등(1996)이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SF)은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직업결정과 관계된 내용으로 하위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Osipow(1987)의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는 진로선택, 확신성, 진로결정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Betz와 Borgen 및 Harmon(2001)의 확장된 기술 자신감 검사(expended-skills confidence inventory)는 직업흥미와 진로성과 등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로 관련 척도 중에서 박명심과 김성희(2006)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와 남미숙(1998)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자아효능감 척도가 있다. 박명심과 김성희(2006)가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는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수행효능감’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으며, 남미숙(1998)의 진로자아효능감 검사는 교육진로와 과업진로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는 비록 명칭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진로와 관련이 깊은 진로준비행동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기학과 이학주(2000), 이은경(2000) 및 최용섭(2000),이은진(2001)의 척도가 있으나 이들 모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Betz 등(1996)의 척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박명심(2008)은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척도에 포함된

개념들을 유사한 개념으로 묶어서 분류 하였다.

다시 말해 진로탐색에 관한 것(자기평가, 직업흥미, 진로탐색, 직업정보수집), 진로결정에 관한 것(목표선택, 진로선택 확신성, 진로결정정도, 진로결정양식, 결정과제),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 및 직업생활 수행에 관한 것(교육요구, 교육진로, 과업진로, 진로준비행동, 미래계획수립, 직업요구, 진로성과, 수행목표, 수행능력, 문제해결)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진로와 관련된 측정도구들을 통해서 추출한 진로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는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수행효능감’ 세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구 대상과 검사 도구의 구성요소 등을 고려해 볼 때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박명심과 김성희(2006)가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란 박명심과 김성희(2006)의 진로자기효능감 검사 결과로 나타난 점수의 수준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진로상담 프로그램

1) 진로상담의 의미

‘진로’라는 말 자체가 계속성을 의미하듯이, 진로란 한 순간의 선택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과거·현재·미래를 총괄하는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과정 안에서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 등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성숙해진다는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 주로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진로상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Super(1951)는 ‘일의 세계에서 적절히 융화된 자신의 역할상과 자아상을 발전시키고 수용하여 그것을 현실에 검토해 그 자체를 만족하고 사회에 이익 되는

현실로 전환하도록 개인을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

Bailey와 Stadt(1973)는 진로상담을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정보수집을 통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충기(1993)는 진로상담이란 진로 발달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이해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상담자와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상담의 종합적 과정이라고 했다.

한편 진로상담은 그 대상 인원수를 기준으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은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시기에 당면하는 직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상담보다는 집단 활동을 구조화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분야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홍향표, 2003;곽영주, 2004; 김은정, 2005; 박필자, 2006; 류은영, 2007)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집단상담은 첫째, 자신과 타인을 이전과 다르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을 제공하고, 둘째,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며, 셋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분석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집단 상담의 효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발달상의 갖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볼 때, 진로상담이란 '미래의 불확실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집단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활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자기 이해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상담자와 집단원들이 원만한 인간관계와 활발한 집단역동 속에서 합리적인 진로결정 태도와 능력 및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상담의 종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밖 청소년과 진로상담 프로그램 구성

일반적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일탈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일탈을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면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한준상, 1997). 진로상담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진로에 대해 성숙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원동력으로써, 또한 정규 학교 과정에서 벗어나 적절한 다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개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한지원, 2002).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그들에게 알맞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진로지도 집단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김충기(1987)는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아 개념의 구체화,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계획에 대한 책임감, 의사결정능력, 협동적인 사회적 행동, 일에 대한 태도 등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Bowlsbey(1996)가 개발한 진로계획 과정지원 체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꿈을 현실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한 ①자기이해, ②구조화된 방법을 통한 직업적 탐색, ③자신에 관한 정보(능력, 흥미, 일에 대한 가치), ④목록에 올라와 있는 직업에 관한 폭넓은 정보수집, ⑤두 개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직업선택과 그 직업의 필요한 교육내용 탐색, ⑥개인적인 진로 계획작성, ⑦내적, 외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까지 수립된 계획의 실천 등 7단계로 되어 있다(장대운 외, 1996).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이 위기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한 청소년 직업 및 취업설계프로그램(TOP: Teenager Occupation Program Manual)은 동기화, 경제교육, 직업탐색, 구직기술, 대인관계 기술, 결의·목표세우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은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에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진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가

장 많이 언급된 요소로 미래와 진로에 대한 동기화, 직업탐색, 대인관계기술, 일상생활 기술, 경제교육, 구직기술, 결의와 목표세우기 등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은 ‘위기청소년 자립준비를 위한 두드림존’프로그램을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등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동기부여, 경제교육, 구직기술, 직업탐색, 결의·목표세우기 등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2007)의 ‘위기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잡으로 To the Job)’은 동기화,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동기부여, 직업세계 이해, 자기이해, 진로계획, 대인관계 기술이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그 외에도 구직기술, 경제 교육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이 개발한 ‘위기청소년 자립준비를 위한 두드림존’프로그램 중 1단계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내용 구성은 동기부여, 직업세계 이해, 자기이해, 진로계획, 구직기술, 의사소통능력을 다루고자 한다.

5.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진로성숙도,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으며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준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진로성숙도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로 김은정(2005)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응 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홍향표(2003)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영(2003)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능력 및 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김진순(2005)은 “진로탐색 프로그램 활용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 적용 후 효과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한지원(2002)은 학교중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진로성숙도 검사와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및 사례들의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태도영역에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프로그램 진행과정 기록 및 관찰에 의하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향상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집단 구성원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자신의 관심사나 희망직업들에 대해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와 실제적인 체험을 하면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곽영주(2004)는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이 학교 중도탈락으로 각급 학교단계별 진로 교육의 목표인 유·초등학교의 진로인식 단계, 중학교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수집하는 진로탐색 단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목표인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진로목표 및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진로계획 단계 및 진로 준비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지만, 진로집단상담이 생애단계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박경자(2008)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진로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프

로그램 종결 12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하여 진로성숙도 전체점수 및 하위 요인별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별 특성은 추후검사를 실시한 시점까지 그 변화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진로자기효능감

김남진(2003)은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진로자기효능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조용선(2005)은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진로탐색집단상담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박필자(2006)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전체는 물론 네 개 하위 영역인 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타협성, 진로성향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으며, 더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점수와 하위영역인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계획 수립, 목표 선정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370명의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 자기효능감 요인과 진로태도성숙요인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인 중 결정성과 확신성 차원이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수로서의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 성별, 학년별, 그리고 전공별 변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로 태도 총점과 5개의 하위 요인 모두에 대한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가 전체의 약 40%정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수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적 확신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하였다.

류은영(2007)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진로지도·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적용과 검증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방법 즉,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도구, 연구절차,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보호관찰소와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학교밖 청소년 가운데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16세~21세 이내의 학교밖 청소년 14명을 선정하여 비교집단 7명, 상담집단 7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2. 연구설계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상담·비교집단 설계를 채택했으며, 그 모형은 다음과 같다.

상담집단	O ₁	X	O ₂
비교집단	O ₃		O ₄

O₁ , O₃ = 사전검사(진로성숙도검사, 진로자기효능감검사)

O₂ , O₄ = 사후검사(진로성숙도검사, 진로자기효능감검사)

X = 진로상담 프로그램

[그림Ⅲ-1] 연구 설계

3. 연구도구

1)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위기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중 1단계 교육프로그램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프로그램의 개략적 내용은 <표Ⅲ-1>과 같다. 전체 프로그램은 매주 2회, 90분씩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표Ⅲ-1> 진로상담 프로그램 구성 내용

영역	회기	프로그램	내용	성 과
준비 단계	1	프로그램 안내 및 친밀감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안내 ■ 빙고게임을 통한 자기소개 ■ 친밀감 형성 놀이 ■ 약속정하기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촉진, 친밀감 형성
동기 부여	2	행복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실현한 사람 ■ 10년 후 내모습 표현하기 	집단상담 참여에 관심
직업 세계 이해	3	다양한 직업세계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은직업찾기 ■ 변화하는 직업세계 ■ 직업 골든벨 ■ 직업 탐색 방법 소개 	다양한 직업세계 및 구체적인 탐색방법을 앎으로써 진로결정의 폭 확대
자기 이해	4	자신의 장점 및 가치관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소중한 것들 ■ 홀랜드 진로탐색검사 실시 ■ 장점찾기 	자신의 장점을 찾아봄으로써 자존감 향상 도모
	5	직업가치관 탐색 및 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가치관 경매 게임 ■ 홀랜드 진로탐색 검사 결과를 통해 본 적성 및 흥미알기 ■ 친구가 추천해 주는 직업 ■ 진로종합카드 작성 	자기이해 및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
진로 계획	6	목표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세우는 방법 ■ 장기·단기 목표세우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 목표 계획

구직 기술	7	취업에 필요한 기술 <이력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이력서 작성법 ■ 미래의 이력서 작성 	효과적인 구직기술 능력 향상
	8	취업에 필요한 기술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이란? ■ 모의면접 ■ 명함 만들기 	
의사소 통능력	9	갈등상황 해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상황 대처법 알기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앎으로서 문제상황 해결하는 능력향상
마무리	10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프로그램 소감나누기 	전체 프로그램 내용 정리 및 소감나누기

2)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는 5개의 하위요인의 총 47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1-5점 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성 요인으로서,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즉,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둘째,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 정보 수집 능력,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준비성 요인이다.

셋째, 독립성 요인으로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나타낸다.

넷째, 목적성 요인으로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진로 선택 시 경제적인 보상, 승진기회, 장래전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일을 통한 자기 개발, 대인관계 등과 같은 측면을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확신성 요인으로 진로 선택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낸다. 역산 처리 문항은 25개 문항(3, 11, 12, 13, 15, 19, 20, 21, 23, 25, 27, 29, 30, 31, 32, 33, 34, 35, 36, 37, 39, 42, 45, 46, 47)이며, 이 검사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은 <표Ⅲ- 2>와 같다.

<표Ⅲ-2> 진로태도성숙도 척도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a 계수
결정성	10	38~47	.54
목적성	8	30~37	.40
확신성	10	20~29	.64
준비성	10	1~10	.85
독립성	9	11~19	.66
계	47		.74

3) 진로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근거에 따라 박명심과 김성희(2006)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진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된 자기 효능감, 즉 진로탐색 능력, 진로결정 능력, 진로수행 능력 등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척도이다.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박명심과 김성희, 2006)는 Betz와 Hackett(1981)의 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론과 Super(1951)의 진로발달이론을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총 32문항이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 전반에 대해서, 즉 진로탐색 능력, 진로결정 능력, 진로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역산 처리 문항은 5개 문항(4, 6, 12, 21, 25)이며, 진로자기효능감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영역 문항 구성은 <표Ⅲ- 3>과 같다.

<표Ⅲ-3>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의 α 계수
진로탐색효능감	10	2, 3, 4, 5, 16, 17, 18, 19, 20, 30, 31	.89
진로결정효능감	11	1, 4, 6, 7, 8, 9, 10, 12, 13, 21, 25	.45
진로수행효능감	11	11, 14, 15, 22, 23, 24, 25, 27, 28, 29, 32	.47
전체	32		.76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는 ‘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수행’으로 명명된 3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들은 10~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가지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효능감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 대학의 학과와 대학에 관한 정보수집 및 미래에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진로결정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 및 전공 학과의 선택과 결정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진로수행효능감은 진학을 위한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에 자신의 직업을 가졌을 때 얼마나 직업생활에 잘 적응하고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5개 하위요인과 각 요인별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척도(이기학과 이학주, 2000; 이은경, 2000; 조아미, 2000; 최용섭, 2000; Betz 외, 1996)에 비해서 요인별 문항 수 측면에서 안정된 요인구조를 갖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데 우리 문화에 보다 적합한 척도이다(이상민 외, 2007).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상담·비교집단의 구성,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Ⅲ-4> 연구의 진행절차

실험단계	내용	일정	대상집단
연구대상 선정	제주시 관내 보호관찰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 청소년 현황 조사	2008년 12월 22일 ~2008년 12월 30일	제주시 관내 보호관찰소,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전검사 및 집단구성	진로성숙도검사, 진로자기효능감검사, 상담집단 7명, 비교집단 7명 구성	2009년 1월 2일 ~2009년 1월 13일	상담집단, 비교집단
실험처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2009년 1월 13일 ~2009년 2월 12일	상담집단
사후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진로자기효능감검사	2009년 2월 12일	상담집단, 비교집단

5. 자료처리

자료분석방법으로 SPSS WIN 10.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먼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동질성을 확인한 후 상담집단에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t-검증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였다.

먼저 집단간 사전검사 점수의 비교를 통하여 동질성을 검증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여 연구가설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집단간 동질성 검증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무선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간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 앞서 집단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1) 진로성숙도 동질성 검증

<표IV-1> 집단별 진로성숙도의 사전검사 차이 검증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p
	M	SD	M	SD		
결정성	29.43	3.26	30.43	4.28	.492	.632
목적성	24.57	3.10	23.57	3.05	.609	.554
확신성	31.86	3.13	31.00	4.43	.609	.554
준비성	30.14	6.41	33.71	4.61	.418	.684
독립성	36.29	5.22	34.00	4.08	1.196	.255
진로성숙도 (전체)	149.29	11.22	149.86	12.21	.091	.929

위의 <표IV-1>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진로성숙도 검사에 대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에 실시한 진로성숙도 검사의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별 점수에 있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사전검사 시 집단 간에 진로성숙도 점수의 전체 점수와 하위 요인별 점수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성숙도 검사의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별 점수에 대한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 되었다.

(2) 진로자기효능감 동질성 검증

<표IV-2> 집단별 진로자기효능감 사전검사 차이 검정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p
	M	SD	M	SD		
진로탐색효능감	27.43	8.26	30.57	3.36	.932	.370
진로결정효능감	32.29	4.72	32.71	2.43	.214	.834
진로수행효능감	36.14	3.18	32.14	4.81	1.834	.092
진로자기효능감 (전체)	95.86	12.79	95.29	7.09	.103	.919

위의 <표IV-2>는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진로자기효능감 검사에 대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에 실시한 진로자기효능감 검사의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별 점수에 있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사전검사 시 집단 간에 진로자기효능감 점수의 전체 점수와 하위 요인별 점수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자기효능감 검사의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별 점수에 대한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 되었다.

2. 진로성숙도

1) 가설 1의 차이 검증

【가설 1】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3> 집단별 진로성숙도 사후검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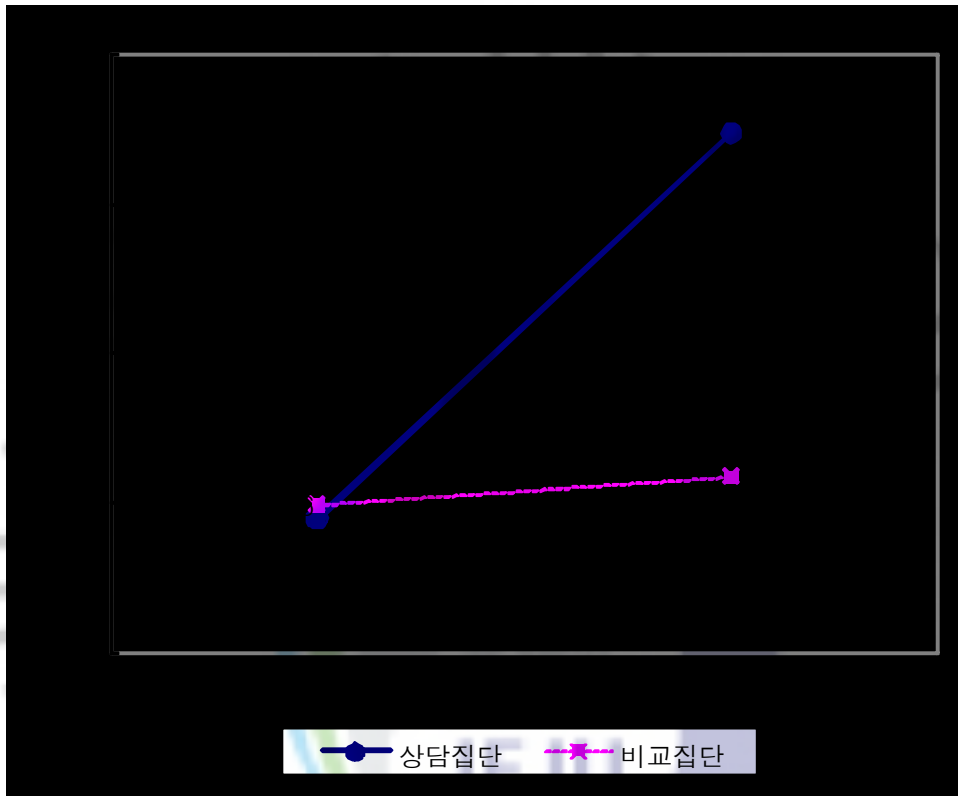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결정성	35.86	4.30	30.43	4.93	2.196*
목적성	25.43	3.05	23.00	2.94	1.516
확신성	39.14	3.89	29.57	3.78	4.668**
준비성	39.29	6.05	35.43	5.47	1.251
독립성	38.43	4.58	36.00	5.54	.894
전체	174.71	12.11	151.71	13.24	3.392**

* $p < .05$ ** $p < .01$

위의 <표IV-3>은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진로성숙도 점수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에서 상담집단은 평균 174.71, 비교집단은 평균 151.71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392$, $p < .01$).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이 수용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

로성속도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속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진로성속도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사전·사후 진로성속도 변화

이러한 결과는 진로집단상담이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진로성속도에 효과가 있다는 박영주(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김윤주(2006)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진로성속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탐색 및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구체적인 구직기술 등의 경험을 함으로써 진로성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1) 가설 1-1의 차이 검증

【가설 1-1】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점수의 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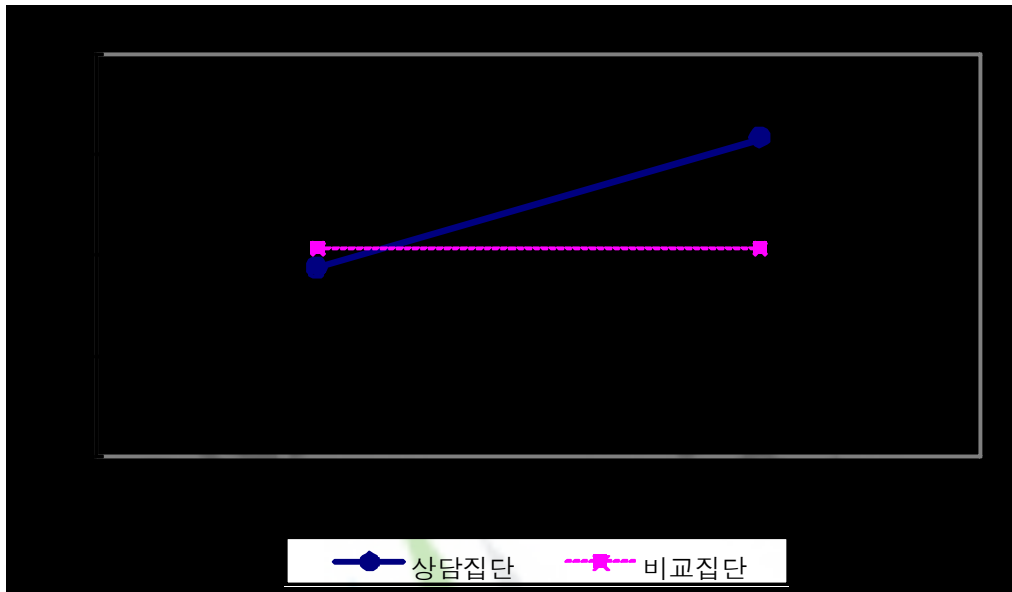
<표IV-4> 집단별 결정성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결정성	35.86	4.30	30.43	4.93	2.196*

* $p < .05$

위의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성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집단은 평균 35.86, 비교집단은 평균 30.43으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96$, $p < .05$).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결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1]이 수용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정성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결정성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2]와 같다



[그림 IV-2] 사전·사후 결정성 변화

이러한 결과는 진로집단상담이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결정도와 타협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곽영주(2004)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진로의식성숙의 하위영역인 진로결정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박필자(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탐색해 보고, 더불어 평소 자신이 관심 갖고 있었던 진로, 주변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진로 등을 종합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이 확고해 진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설 1-2 차이 검증

【가설 1-2】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목적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목적성 점수의 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Ⅳ-5> 집단별 목적성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목적성	25.43	3.05	23.00	2.94	1.516

위의 <표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성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집단은 평균 25.43, 비교집단은 평균 23.00으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516$).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목적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2]는 기각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목적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밝힐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REBT를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서영석(2006)의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요인인 목적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 시 일을 통한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과 같은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보상, 승진 기회, 장래 전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더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가설 1-3 가설 검증

【가설 1-3】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확신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확신성 점수의 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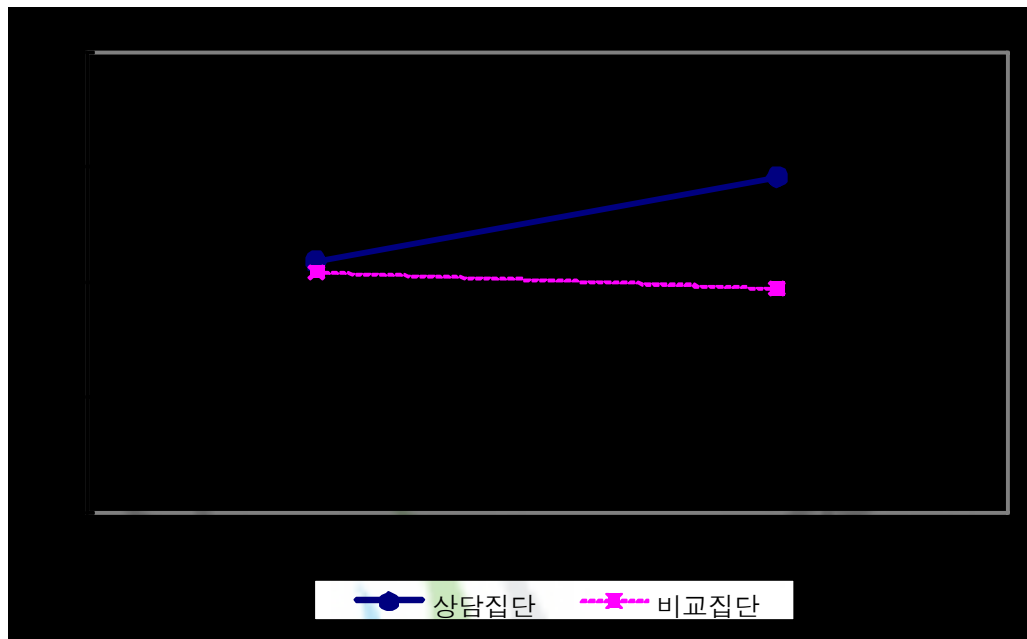
<표IV-6> 집단별 확신성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확신성	39.14	3.89	29.57	3.78	4.668**

** $p < .01$

위의 <표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신성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집단은 평균 39.14, 비교집단은 평균 29.57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668$, $p < .01$).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확신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3]이 수용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 확신성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확신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확신성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3]과 같다.



[그림 IV-3] 사전·사후 확신성 변화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류은영(2007)의 연구에서 확신성을 비롯한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다양한 직업세계를 알고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인식한 후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 계획하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 구성원의 진로 선택에 대한 상담자의 지지와 구성원간의 긍정적 피드백이 확신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 가설 1-4 차이 검증

【가설 1-4】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 점수의 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7> 집단별 준비성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진로준비성	39.29	6.05	35.43	5.47	1.251

위의 <표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비성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집단은 평균 39.29, 비교집단은 평균 35.43으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251$).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준비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4]는 기각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밝힐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류은영(2007)의 연구에서 준비성을 비롯한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다르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다양한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데서 온 결과로 보여진다.

(5) 가설 1-5 차이 검증

【가설 1-5】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독립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독립성 점수의 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8> 집단별 독립성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독립성	38.43	4.58	36.00	5.54	.894

위의 <표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성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집단은 평균 38.43, 비교집단은 평균 36.00으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894$).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독립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5]는 기각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독립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밝힐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김윤남(2001)이 Holland진로상담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독립성을 비롯한 진로의식발달 영역 전체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집단상담의 효과를 측정해 본 결과 5개 하위척도 중에서 진로성숙도의 독립성과 선택의 태도를 제외한 3개의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한 윤매리(1996)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린 결과가 되어 이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또다시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릴까 염려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2004)는 조사결과와 같이, 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의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진로자기효능감

【가설 2】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Ⅳ-9> 집단별 진로자기효능감 사후검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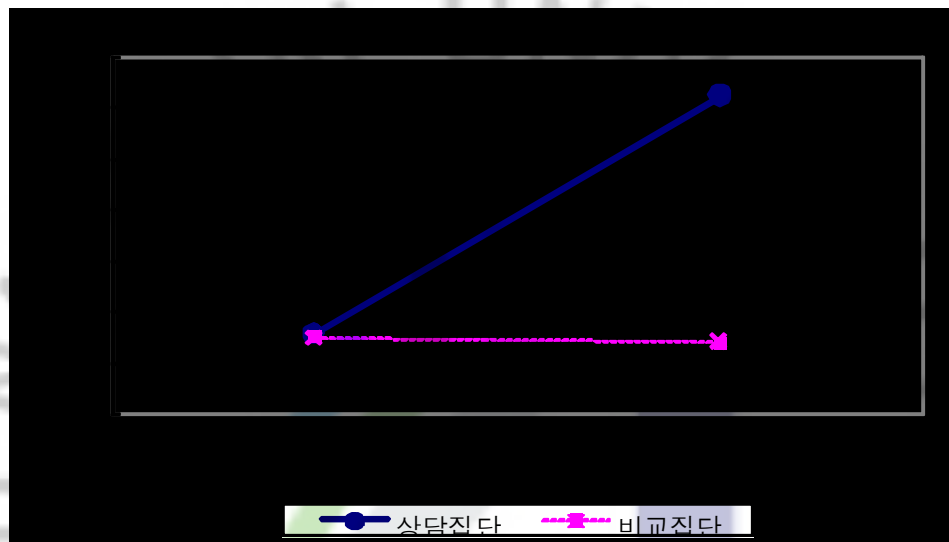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진로탐색효능감	44.57	4.58	29.71	5.22	5.662***
진로결정효능감	47.86	4.38	31.86	3.63	7.450***
진로수행효능감	50.43	1.51	33.00	4.32	10.074***
전체	142.57	8.16	94.14	9.74	10.085***

*** $p < .001$

위의 <표Ⅳ- 9>은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진로자기효능감 점수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자기효능감에 서 상담집단은 평균 142.57, 비교집단은 평균 94.14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10.085, p<.001$).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2]가 수용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자기효능감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진로자기효능감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 4]와 같다.



[그림 IV-4] 사전·사후 진로자기효능감 변화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해 본 결과 진로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조용선(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홍철(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업정보에 대한 지식 획득, 자신의 적성과 흥미 파악, 잠정적인 진로선택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 가설 2-1 차이 검증

【가설 2-1】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탐색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탐색효능감 점수의 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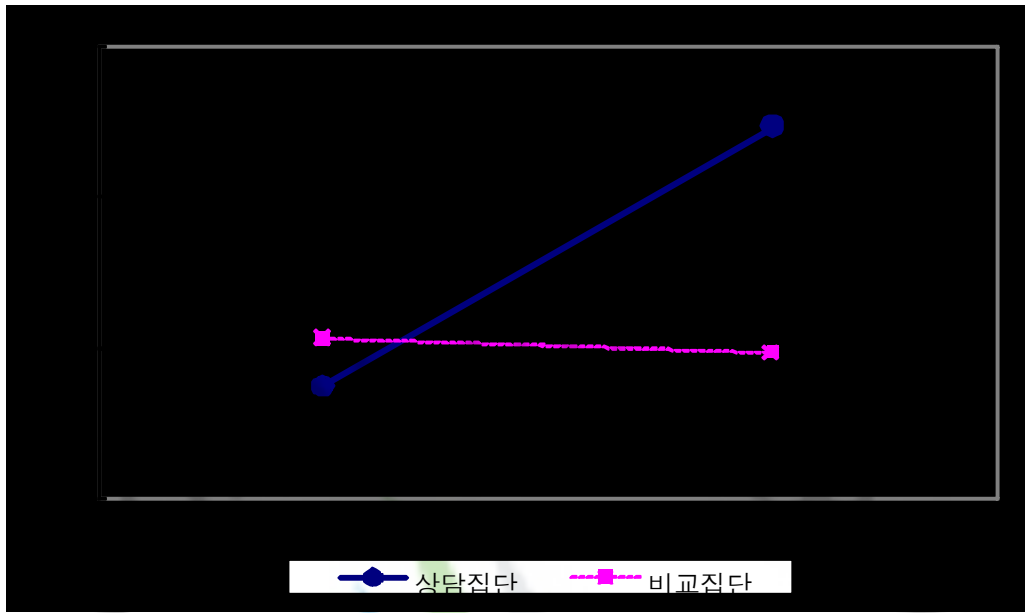
<표IV-10> 집단별 진로탐색효능감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진로탐색효능감	44.57	4.58	29.71	5.22	5.662***

*** $p < .001$

위의 <표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탐색효능감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 보면 상담집단은 평균 44.57, 비교집단은 평균 29.71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5.662, p<.001$).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탐색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1]이 수용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탐색효능감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탐색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진로탐색효능감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 5]와 같다.



[그림 IV-5] 사전·사후 진로탐색효능감 변화

(2) 가설 2-2 차이 검증

【가설 2-2】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효능감 점수의 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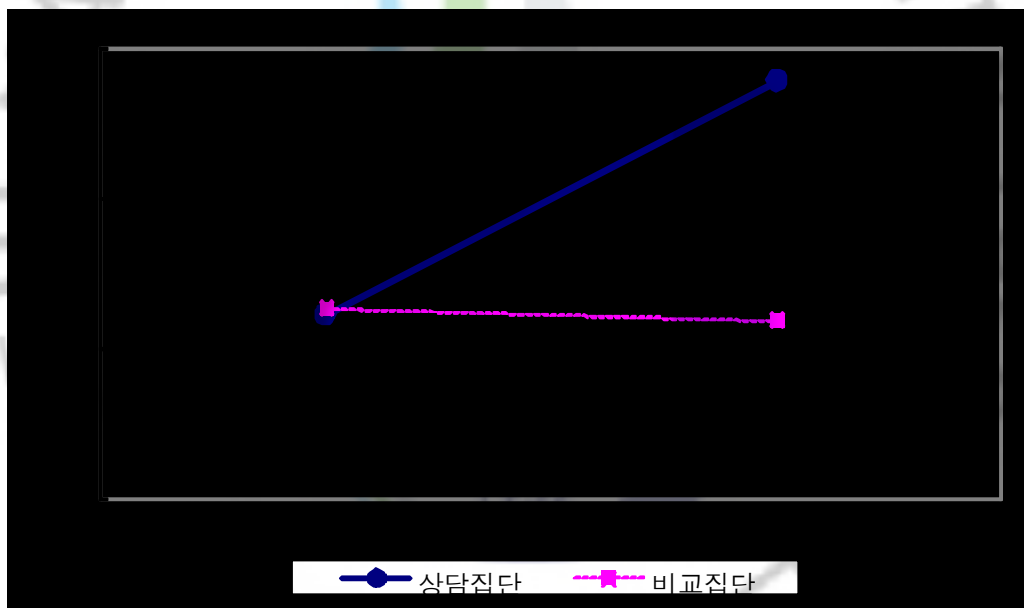
<표 IV-11> 집단별 진로결정효능감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진로결정효능감	47.86	4.38	31.86	3.63	7.450***

*** $p < .001$

위의 <표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결정효능감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 보면 상담집단은 평균 47.86, 비교집단은 평균 31.86으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7.450, p<.001$).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2]가 수용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효능감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 6]과 같다.



[그림IV-6] 사전·사후 진로결정효능감 변화

(3) 가설 2-3 차이 검증

【가설 2-3】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수행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수행효능감 점수의 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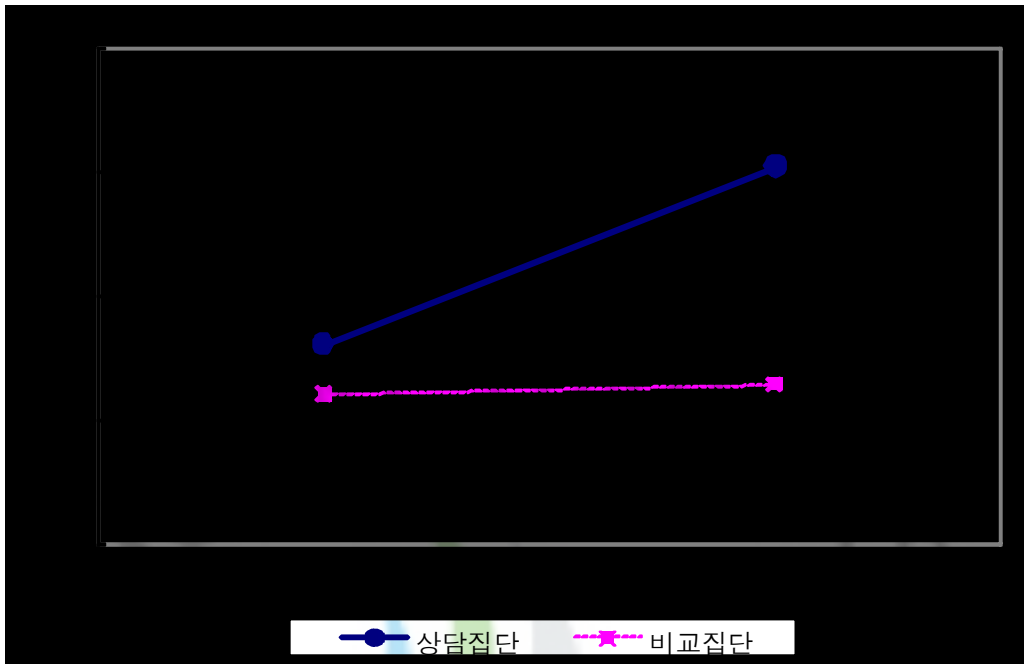
<표Ⅳ-12> 집단별 진로수행효능감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7)		비교집단(n=7)		t
	M	SD	M	SD	
진로수행효능감	50.43	1.51	33.00	4.32	10.074***

*** $p < .001$

위의 <표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수행효능감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집단은 평균 50.43, 비교집단은 평균 33.00으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t=10.074, p<.001$).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진로수행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3]이 수용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수행효능감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수행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진로수행효능감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Ⅳ- 7]과 같다.



[그림 IV-7] 사전·사후 진로수행효능감 변화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자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이 정규교육과정 밖에서도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진로 준비 및 선택,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에게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 한 후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둘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고, 진로자기효능감은 박명심과 김성희(2006)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위기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중 1단계 교육프로그램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으며 SPSS WIN 10.0을 활용하여 상담집단에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t-검증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 진로성숙도가 증가되어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 가운데 결정성과 확신성이 증가되어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과 확신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사후 진로자기효능감이 증가되어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수행효능감이 증가되어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수행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킨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에 대하여 이해하고 직업 세계의 이해를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계획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 안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게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자기 탐색 및 자기 이해, 직업세계 이해 등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

켜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것이다.

둘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인 결정성과 확신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을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에서 진로탐색 검사를 통한 자신의 적성 및 진로의 이해, 직업선택 경험과 구직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과정을 통해 일의 의미를 단순한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성취감 및 만족을 추구하는 목적성과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인 준비성 및 진로결정의 책임을 수용하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태도로서의 독립성의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 많은 기초자료들과 정보들을 접합함으로써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진로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직업세계, 직업정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의 직업적 소질 파악, 잠정적 진로 선택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과정에서 집단원 상호간에 친밀감을 바탕으로 언어적 격려와 정서적 지지 경험을 통해 진로자기효능감이 증가했으리라 해석된다.

넷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수행효능감을 향상시킨다. 이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이 학교밖 청소년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진로와 관련된 성공 경험을 하게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하고 구직 기술을 익히는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상담 프로그램 적용 및 관련 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보호관찰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가 각 7명씩 14명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집단 구성원 수를 더 늘려 진로상담프로그램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효과성을 일반화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의 단기적 변화뿐만 아니라 추후 검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및 운영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곽영주(2004). **진로집단상담이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7).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 교육월보. 제161호. 53-61.
-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 구자경·홍지영·장유진(2001). **청소년의 자퇴요구 실태와 관련 특성 연구. 학교를 떠나고 싶은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청소년종합상담실.
- 권현진(1997).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순·배중훈(1998). **진로자기효능감의 이론적 고찰**. **중등교육연구**, 10, 378-400.
- 김남진(2003).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김혜영(2001).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및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제 3권 1호. 3-22.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김병석·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원중(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남(2001). **Holland 진로집단 상담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주(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의사결정능력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5).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부적응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 학**

-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수·김명준(1996). **진로성숙도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진순(2005). **진로탐색 프로그램 활용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호(2004).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사회적 과제. 한국의 소수자, 전망과 실태**.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김충기(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배영사.
- 김충기(1987).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원사.
- 김충기(1993). **진로상담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1, 92-135.
- 남미숙(1998). **초등학생의 진로자아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은영(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자(2008). **진로집단상담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심·김성희(2006). **고등학생용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회연구, 7, 385-397.
- 박명심(2008). **고등학생용 진로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남·임성택·전경숙·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필자(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2006). **REBT를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2004).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어려움과 상담전략**.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송인섭(2000). **진로성숙도 검사 요약**. 서울: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
- 안현의(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46: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7-15**,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매리(1996). **진로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림(2000).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상민·남숙영·박희락·김동현(2007). 단축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인타당도 재검검. **상담학연구**, 8, 1047-1061.
- 이숙영·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시형·박현선·이세용·이소임·이영란(2002).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관한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진(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장대운·김충기·박경애·김진희(1996). **청소년진로상담**, 청소년대화의광장.
- 장석민(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교육

- 개발원.
- 장석민(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46: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지도 대책.** 한국청소년상담원.
- 조병수·소수연·오충관·정민재·박성호(2004).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과 이해. **2004 청소년상담심포지움**, 9-41.
- 조용태·배영태(2003). 학교 중도탈락의 요인에 관한 고찰. **교육학논총**, 24(1), 173-192.
- 조용선(2005).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대화의광장(1996). **청소년 집단상담.**
- 최용섭(2000).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창(2006). **현실요법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2007). **위기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잠으로: To the Job)개발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연보.**
- 한국청소년상담원(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6.**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4a). **학교밖청소년 길찾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4b). **학교밖청소년의 이해 및 개입방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7). **청소년 직업 및 취업설계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7). **두드림존 프로그램 매뉴얼 1단계.**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준상(1997). 중퇴생의 진로 선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진로교육 연구 제7집**. pp. 115-134.
- 한지원(2002). **학교중퇴청소년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영(2003).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설(2006).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 진로의 사결정능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향표(2003).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iley, L. J. & Stadt, L.(1973).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es to human development*, Blooming, IL: McNjght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s*, 44, 1175-1184.
- Betz, N, E., Borgen, F. H., & Harmon, L.W. (2001). *Technical manual for the expanded skills confidence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 _____ (1987). Concept of agency educational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Counseling Psychology*, 34, 299-308.

- _____ (2006). Career self-efficacy theory: Back to the futur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3-21.
- Betz, N. E., & Taylor, K. M.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Crites, J. O.(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CET/McGraw Hill.
- Good, G. E., Nord, D., & Solberg, V. S. (1994). Career search self-efficacy: Ripe for appli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 63-71.
- Gribbons, W. D., & Lohnes, P. R.(1966). A five-year study of student educational aspiration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4, 66-69.
- Hoyt, K. B. (1977). *The school counse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Levine, R. S.(1984) An Assessment tool for early intervention in cases of truancy, *Social Work in Education*, 6.
- Osipow, S. H.(1987).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I: *Psychological Assesmet Resources*.
- Super, D. E.(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s*, 30, 88-92.
- _____, D. E.(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he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Abstract>

Effects of Career Counselling Program on Career Maturity of Students out of School and Self-efficacy of Career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Jang, Jung Im

Supervised by professor, Huh, Chul Soo

The purpose of this paper¹⁾ is to clarify how career counselling program enhance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for career for students outside school. For this purpose, following issues are assigned.

Issue 1 : Is career counselling program effective for improving career maturity in juveniles out of school?

Issue 2 : Is career counselling program effective for improving self-efficacy sense for career in juveniles out of school?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assignment of research objects, pre-investigation, composing counselling group and comparison group, applying career counselling program, inspection after program and data analysis are carried out respectively.

For targeted group, 14 students out of school in their age of 16 to 21 who are willing to attend career counselling program from juvenile protection center, juvenile's resting place and juvenile counselling supporting center located Jeju city are assigned, and among them, experimental group of 7 juveniles and control group of 7 juveniles are randomly chosen.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developed by Lee Gi Hak (1997) and career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 developed by Park Myeong Sim and Kim Sung Hee

1) This paper is for master's degree, and it is submitted on Aug, 2009 to the committee of post graduate school of Jeju university.

(2006) are used for testing hypotheses. Sub factors for career attitude maturity consists of a total of 47 questions including decision, preparation, independence and confidence, and sub factors for career self-efficacy consists of a total of 32 questions including self-efficacy for finding career path, self-efficacy for determining career and self-efficacy for performing career. Career counselling program was corrected, supplemented and restructured with help of supervised professor based on 1st phase education program from Dudearim zone program for juveniles under risks developed by Korea Youth Counselling Center. And researcher carried out a total of 10 times, 2 times per week for each 90 minutes. SPSS WIN 10.0 is used for data analysis. In order to verify hypothesis assigned by this paper, the program is applied to counselling group, and after-inspection is performed for counselling group and comparison group, and its effectiveness is verified by t-test.

As the result,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s:

First, Career maturity of counselling group which attended career counselling program is meaningfully improved compared with comparison group which didn't attended career counselling program.

Second, decision and confidence among sub factors for career maturity in counseling group which attended career counselling program are meaningfully improved compared with comparison group which didn't attended career counselling program, sense of purpose, preparation and independence don't have meaningful difference.

Third, career self efficacy sense in counseling group which attended career counselling program is meaningfully improved compared with comparison group which didn't attended career counselling program.

Fourth, sub factors of career self-efficacy. i.e career path finding efficacy, efficacy for determining career and efficacy for performing career in counseling group which attended career counselling program are meaningfully improved compared with comparison group which didn't attended career counselling program.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reer counseling program is believed to recognize juvenile's suitable career and to let them perform their careers and prepare their own career paths even apart from regular education, and have them confidences for future career, thus to

help improve career maturity and sense of career self-efficacy while they understand themselves and various job world, job informations, experiences of selecting jobs and detailed employment techniques.



부 록

<부록 1> 진로성숙도 검사	61
<부록 2> 진로자기효능감 검사	65
<부록 3> 진로상담 프로그램	68



<부록 1>

진로성숙도 검사

다음 진로 선택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지의 문항들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5	4	3	2	1
2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5	4	3	2	1
3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를 알아 보는데에 별로 관심이 없다.	5	4	3	2	1
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	5	4	3	2	1
5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에 관심이 많다	5	4	3	2	1
6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읽는다.	5	4	3	2	1
7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길 원한다.	5	4	3	2	1
8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 하곤 한다.	5	4	3	2	1
9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5	4	3	2	1
10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길 원한다.	5	4	3	2	1
11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5	4	3	2	1
12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5	4	3	2	1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3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5	4	3	2	1
14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5	4	3	2	1
15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지노를 결정할 수 있다.	5	4	3	2	1
16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5	4	3	2	1
17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5	4	3	2	1
18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5	4	3	2	1
19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5	4	3	2	1
20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가지 못할까봐 불안한다.	5	4	3	2	1
21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5	4	3	2	1
22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할 자신이 있다.	5	4	3	2	1
23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5	4	3	2	1
24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할 자신이 있다.	5	4	3	2	1
25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줄지 걱정이다.	5	4	3	2	1
26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5	4	3	2	1
27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5	4	3	2	1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28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5	4	3	2	1
29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5	4	3	2	1
30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5	4	3	2	1
31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5	4	3	2	1
32	나는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5	4	3	2	1
33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5	4	3	2	1
34	나는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5	4	3	2	1
35	나는 내 적성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류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5	4	3	2	1
36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5	4	3	2	1
37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5	4	3	2	1
38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5	4	3	2	1
39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5	4	3	2	1
40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5	4	3	2	1
41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5	4	3	2	1
42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 지 막막하다.	5	4	3	2	1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43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할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5	4	3	2	1
44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5	4	3	2	1
45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	5	4	3	2	1
46	무엇을 해야 할 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5	4	3	2	1
47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5	4	3	2	1



<부록 2>

진로자기효능감

각 문항을 읽어보고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①,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②, ‘보통이다’는 ③, ‘대체로 그렇다’는 ④, ‘매우 그렇다’는 ⑤에 ○표 하세요.

번호	문항내용	문항점수				
		1	2	3	4	5
1	나는 나의 직업에 대한 적성·흥미·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내가 갖고 싶은 직업과 관련된 전공 학과(대학)에 대한 정보를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5
3	내가 갖고 싶은 직업과 관련된 전공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학의 어떤 전공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5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5
6	나에게 알맞은 직업을 알아보는 것이 나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1	2	3	4	5
7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8	대한 직학 시 전공학과 선택의 가능성이 많이 주어지더라도 어려움 없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10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직업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미래 나의 직업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꿈꾸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 이외에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13	내가 선택할 대학의 전공학과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미래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15	내가 선택할 전공과목의 공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문항점수				
		1	2	3	4	5
16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교육 정도(대학, 대학원 진학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17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18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19	진학하고 싶은 대학과 전공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학업성적이 적합한지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20	미래 사회에 유망한 직업에 대해서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21	대학 진학할 때 어떤 전공학과를 선택해야할지 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5
22	나는 미래 나의 직업 생활과 가정생활을 모두 조화롭게 잘해낼 수 있다.	1	2	3	4	5
23	미래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만나는 사람들이나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다.	1	2	3	4	5
24	나는 가질 수 있다면 대부분의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25	대학에 진학할 때 내가 선택한 대학의 전공학과의 적성에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26	미래 직업 생활에서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27	미래 직업 생활에서 상사가 된다면 부하 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전통적인 남·여 성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29	나는 미래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이나 조직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30	대학과 전공학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잘 알고 있다.	1	2	3	4	5
31	여러 가지 직업의 월 평균 수입을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32	결혼 후에도 나는 나의 직업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진로상담 프로그램

▣ 활동 과정

♣ 1회기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구성원들에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2.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동기를 강화시킨다. 3. 집단구성원들 및 진행자 상호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단계	활동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한다. ▣ 본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정하기 및 자기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자 안에 있는 쪽지를 하나씩 뽑게 한 후 쪽지에 적힌 글귀가 있는 모둠에 앉도록 하여 모둠을 구성한다. ☞ 빙고게임을 이용한 자기소개 하기 ▣ 친밀감 형성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게임 ☞ 마주서서 함께 앉고 일어서기 ▣ 약속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정해진 약속들을 색지에 적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는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시간에 대한 소감을 적게 한 후, 발표하도록 한다. ▣ 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

♣ 2회기

목표	1.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한 동기와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한다.
단계	활동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구성원들과 인사한다. ▶ 이번 회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실현한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을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발의 왜소한 축구선수로 세계적인 명문축구클럽 ‘맨체스터 뉴나 이티드’ 선수가 된 ‘박지성’ ☞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꿈을 이룬 KFC창시자 ‘커넬 샌더슨’ ☞ 신체적인 어려움을 이겨낸 ‘닉부이치치’ ② 동영상을 통해 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적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연상되는 단어들을 써보게 하고 그 단어들이 떠오른 이유를 적게 한다. ☞ 나의 성공을 위해 적용하고 싶은 단어를 찾아 이유와 함께 적게한다. ▶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꼴라주로 표현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활동을 통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포인트를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보게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 다음시간을 소개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다.

♣ 3회기

<p>목표</p>	<p>1.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유망직종을 알아본다. 2. 직업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아본다.</p>
<p>단계</p>	<p>활동내용</p>
<p>도입</p>	<p>▶ 학생들과 인사한 후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 이번 회기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p>
<p>전개</p>	<p>▶ 숨은 직업 찾기 ① ‘숨은직업찾기’ 퍼즐게임을 한다. ② 세계적으로 2만개의 직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1만개 이상의 직업이 있음을 알려준다.</p> <p>▶ 변화하는 직업세계 ① 슬라이드 ‘직업전망’을 본다. ② 전망있는 분야 : 전략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 직업, 정보 통신 부문 직업, 국제 교류 관련 직업, 육아 및 교육관련 직업, 레저/문화/실버산업 관련 직업 등 ③ 21세기 유망 직종과 사양직업은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도록 한다.</p> <p>▶ 직업골든벨 ① 슬라이드에 나온 사진 또는 설명을 통해 직업을 맞춘다. 먼저 손을 든 모둠에게 기회를 준다. ② 정답을 맞춘 모둠에게 스티커를 준다.</p> <p>▶ 직업 탐색방법 ① 관심가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찾아봐야 할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모둠별로 의논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고려사항 - 학력, 임금, 전공, 하는일, 요구되는 성결, 전망 등 ② 직업정보를 찾아보는 다양한 방법을 참여 청소년들에게 질문한다. 청소년들이 발표한 내용을 칠판에 적는다. :방법들 - 인터넷, 전문가 인터뷰, 직업사전, 책, 자원봉사, 직접 방문, 직접 그일을 해보기 등 ③ 직업정보를 찾는 방법을 확인한 후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면 나중에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다는 것을 설명하며 개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p>
<p>정리</p>	<p>▶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 다음시간을 소개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다.</p>

♣ 4회기

<p>목표</p>	<p>1.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2.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안다.</p>
<p>단계</p>	<p>활동내용</p>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인사한다. ▣ 이번 회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소중한 가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A4용지를 10등분하여 8칸에는 8가지(가족, 일, 사랑, 우정, 돈 등)의 가치를 적어놓고, 나머지 빈 2칸에는 참가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적게 한다. ② 총 10장의 가치들 가운데 3장을 찢게 하고, 다음에도 3장, 2장, 1장을 순서대로 선택하게 한 후 찢게 한다. ③ 마지막으로 남은 1장의 가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적고, 이야기 나눈다. ▣ 진로탐색 검사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기 위해 ‘홀랜드 진로탐색 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 결과 중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유형 1가지를 확인한다. ③ 6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모두 확인하고, 홀랜드의 직업흥미 유형 설명에 들어간다. ▣ 자신의 장점, 단점 알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품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게 한다. ② 성품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성품(장점)을 찾아보게 한다. ③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과 부족한 성품을 어떻게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용할 것인지 적어보게 한다.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 다음시간을 소개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다.

♣ 5회기

<p>목표</p>	<p>1. 자신의 직업가치관에 대해 안다. 2.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세계에 대해 안다.</p>
<p>단계</p>	<p>활동내용</p>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인사한다. ▶ 이번 회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가치관 경매 게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2가지 ‘직업가치관’이 적혀 있는 종이를 나눠준다. ② 12가지 직업가치관을 읽어본 후 우선순위 및 예상 낙찰가를 정하게 한 후 경매를 시작한다. ③ 12가지 직업가치관 각각에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참가자에게 가치관을 낙찰한다. ④ 낙찰된 가치관은 바로 낙찰자에게 준다. ▶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난 시간 실시된 진로탐색 검사 결과에서 본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고 RIASEC 유형에 대해 안내한다. ② RIASEC 유형 직업분류표를 보고, 하고 싶은 직업을 3가지 고른 후 활동지에 적게 한다. ③ 평소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을 2가지 적게 한다. ④ 같은 모둠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에게 직업을 추천해주도록 한다. ⑤ ②,③,④의 활동을 통해 기록된 직업들 중 한가지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유를 적게 한다. ⑥ 돌아가며 발표한다.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 다음시간을 소개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다.

♣ 6회기

<p>목표</p>	<p>1. 목표세우기의 중요성을 안다. 2.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보며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운다.</p>
<p>단계</p>	<p>활동내용</p>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인사한다. ▶ 이번 회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세우기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친구이야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자물쇠만 보면 관심을 갖고 열어보고 싶어하는 두 친구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친구는 발견하는 것에 재미를 붙였고 다른 한 친구는 쉽게 열리는 자물쇠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재미를 붙였다. 한 친구는 어떻게 하면 자물쇠를 열어서 좋을 것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다른 한 친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문을 잠글까 고민했다. 결국 한 친구는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 누워있게 되고, 다른 한 친구는 자물쇠 관련 회사의 CEO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p> </div> ☞ 계획짜기 5가지 방법 소개(목표는 어떻게 세울까) 슬라이드를 보면 설명한다.(하나하나 쪼개서 구체적으로 /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게 /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 결과를 알 수 있게 / 시간을 정해서) ▶ 10년 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기록하도록 한다. ☞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1년, 3년, 5년, 10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나눠 기록하도록 한다. ☞ 모듈별로 구성원들과 자신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도록 한다. ☞ 눈감고 ‘하나, 둘, 셋’하면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명하기 또는 생일이 앞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모듈별로 한명씩)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 다음시간을 소개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다.

♣ 7회기

목표	1. 이력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이력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단계	활동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인사한 후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 이번 회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하버드대 시험 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1979년 하버드MBA과정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목표설정 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졸업생 중 3%는 자신의 목표를 세워 그 달성 계획을 기록해 놓았고, 13%는 목표가 있지만 기록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84%는 목표가 없었다.</p> <p>10년 후, 목표가 있었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뚜렷한 목표를 기록해 두었던 3%는 나머지 97%보다 무려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point배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력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② 여러 가지 이력서를 제시한 후 잘된 점과 잘못 된 점을 모둠별로 찾아보고 바르게 고치게 한다. 잘한 모둠에게 스티커를 준다. ▶ 미래의 이력서 작성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신의 10년 후 미래 이력서를 작성하게 한다. ② 작성한 이력서는 집단 참가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벽면에 붙이고 모두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한다. ③ 이력서를 가장 잘 쓴 참가자를 뽑아 상을 준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 다음시간을 소개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다.

♣ 8회기

<p>목표</p>	<p>1. 면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면접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p> <p>2. 면접시 옷차림과 태도에서의 주의할 점을 잘 익혀서 모의면접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한다.</p> <p>3. 모의면접을 통해 실제 면접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p>
<p>단계</p>	<p>활동내용</p>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인사한다. ▶ 이번 회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을 볼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면접 옷차림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듬별로 특정 직종을 주제로 주고 직종에 맞는 옷차림을 생각해 본 후 잡지를 오려서 표현해 보도록 한다. ② 모듬별 옷차림을 발표하고 잘된 점과 수정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모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두 팀으로 나눈다. 한팀은 면접자, 한팀은 면접관이 된다. ② 면접관은 예상질문지를 바탕으로 면접자에게 질문을 하고 점수를 기록한다. ③ 역할을 바꾸어 모의 면접을 실시한다. ④ 모든 참여자들의 면접이 끝나면 면접관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태도에 대한 점수를 고려하여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여자가 있는 모듬에게 스티커를 준다. ⑥ 면접자와 면접관이 되어 본 소감을 서로 나눈다.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 다음시간을 소개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다.

♣ 9회기

<p>목표</p>	<p>1.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2. 갈등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p>
<p>단계</p>	<p>활동내용</p>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인사한다. ▶ 이번 회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슬라이드 ‘갈등상황’을 함께 본다. ② ‘문제해결 5단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문제를 파악한다. ☞2단계 : 서로의 감정을 파악한다. ☞3단계 : 해결책을 찾아본다. ☞4단계 :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본다 ☞5단계 :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③ ‘문제해결 5단계’를 참고하여 갈등상황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문제를 파악한 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능한 많이 찾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일단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능한 많은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됨을 설명한다. ▶ 갈등상황 대처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가지 갈등상황 중 1가지 갈등상황을 모듈별로 선택하게 한다. ② 모듈별로 선택한 사례에 대해 의논한다. ③ 사례에 대한 의논이 끝나면 스케치북에 내용을 기록하고 모듈별로 발표한다.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 다음시간을 소개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다.

♣ 10회기

목표	1.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단계	활동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인사한 후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 이번 회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돌아보기 : 진로 골든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슬라이드 ‘진로골든벨’을 통해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를 질문한다. ② ‘진로골든벨’을 진행하며 그동안 다룬 주제와 활동 등을 정리한다. ▶ 사랑의 롤링페이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회기 동안 함께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사랑의 한마디’를 적는다. ▶ 전체 프로그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여 발표하며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둥근 원을 만들어 악수를 하며 헤어짐의 시간을 갖고 마친다.